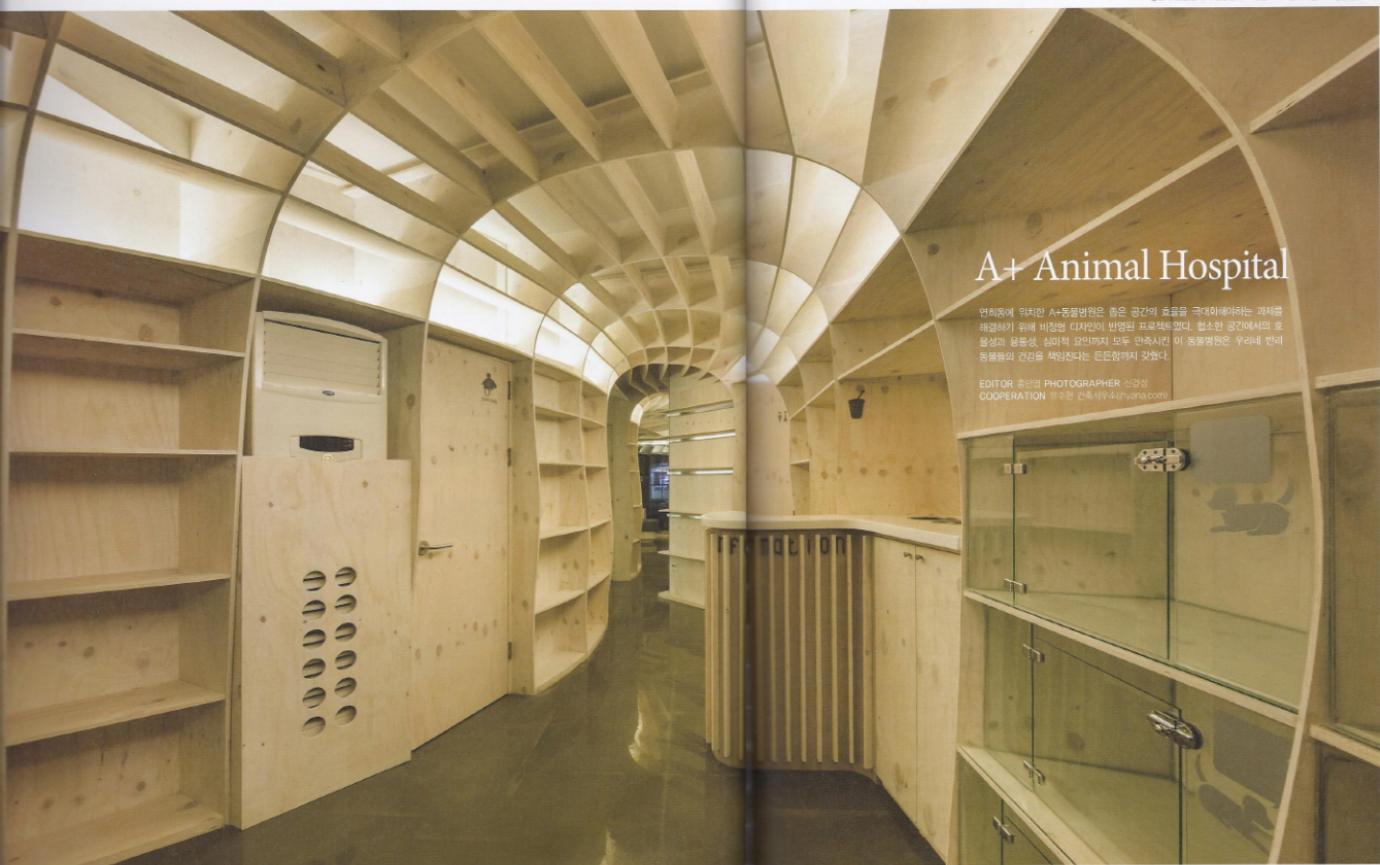


A+ Animal Hospital

면회동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좁은 공간의 도움을 극대화해내려는 과정을
재경험하기 위해 비정형 디자인의 반영된 프로젝트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의 효
율성과 유통성, 심미적 요인까지 모두 만족시킨 이 동물병원은 우리네 반려
동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든든함까지 갖췄다.

EDITOR 출판장 PHOTOGRAPHER 신선정
COOPERATION 베주현 건축사사무소(pvana.com)





1

1. 높고 깊은 느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흙의 모습

비정형 디자인의 건축적 가능성을 확인한 동물병원

A+동물병원은 좁은 공간 안에서 동물병원에 요구되는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이와 함께 병원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전면에 보여줘야 하는 프로젝트였다. 연면적 53㎡ 규모, 약 17평 규모의 작은 공간에 프로그램을 모두 수용하면서 소원도에서는 시선을 끌만한 풍 공간을 보여주고, 수납공간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가능한 많은 수납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요구조건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제해석하고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는 비정형의 유기적 디자인을 도출하는 초조가 될 수 있음을.

예상용량 디스플레이 및 홀 철장으로 활용되는 다목적 선반은 흙을 규정하는 내재 역할을 하게 됐고 공간의 실격에 따라 그 용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반이 끈 벼랑이 되었기 때문에 공간분할에 필요한 벽체 두께 10cm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 공간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이 병원의 기준 배치는 각 기능별의 요구에 따라 임구 자투리 공간이 흙 난은 구조였다. 러버등들을 떨어져 하는 고기 입장에서는 공간을 분활하는 벽체에 가로막혀 도로에서부터 답답하고 어울리지 못한 병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디자인된 흙 공간 전체가 소원도를 통해 느껴지도록 대기 흙과 물동들의 유희공간을 통합하고 거울을 활용한 척사효과로 규모에 비해 넓어진 공간감을 확보했다. 또 흙 양쪽 벽의 선반은 천장까지 감싸면서 공간 전체에 질서와 리듬감을 부여하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와 함께 다목적 선반은 수납뿐 아니라 예판원과 유희공간과 보호장이 결합된 형태로 험으며 따뜻한 색상의 조명을 더해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온화한 공간을 연출했다. 바닥 재료인 화이트워시 미송합판은 가구를 포함한 공간 전체에 사용돼 공감을 더욱 극대화했다. ■



2. 비정형 디자인을 시도한 흙의 모습이 한 눈에 보이는 소원도

INTERVIEW

Q. 평소 디자인에 대한 영감은 어디에서 얻나요?

A. 디자인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상이 빛면적으로 갖는 '빛'에 집중해 딘서를 찾는 편입니다. 가구, 조형물과 같은 오브제를 디자인할 때는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기도 하면서 건축디자인의 경우 전적으로 건축 프로그램, 사용자, 대지 등에서 딘서를 찾습니다.

Q. A+동물병원 디자인 시 영감은 어디에서 얻나요?

A. 이곳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받았던 공간의 첫 느낌이 딘서가 됐습니다. 당시 구조식에서는 이로이니 운영하는 슈퍼마켓 같이 예산한 진열과 무설정한 공간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양성보다는 통일된 하나의 조형아이템을 사용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약 17평 규모의 이러한 동물병원이자 예술장 및 유희시설, 전시장, 수납장 등 다양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했고, '선반'은 이러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통일된 어휘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조형이었습니다.

Q. 주로 사용한 자재는 무엇인지, 특히 이런 흙성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반을 구성하는 비정형 단위를 강조하고 시공하는데 목재합판은 다른 재료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산을 고려해 목재합판을 선택하고 미송합판이 갖는 강한 흙은 흙이므로 차운을 통해 차분하게 만들어 글로벌화와 통일감을 줍니다. 그 결과, 따뜻한 느낌의 재료를 통일된 조형아이템으로 활용해 병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예전에는 빛, 색, 풍경에 놀란 것 같다는 다른 반응을 보여서 재미있고 투듯합니다.

Q. A+동물병원을 설계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 이번 작업은 비정형 디자인의 건축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제에 비정형 딘서를 선택하는데, 비정형 디자인은 반영된 건물을 읽기 어렵지만 초기 계획안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시장성과 경제성을 살피면서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기에 이기도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 A+동물병원은 '선별'이라는 주제를 '액션기법'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목재 선반의 개별 부재 중 같은 크기와 각도는 갖는 부재는 단 하나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비정형 디자인이 성취할 수 있는 공간의 효율성과 감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공성과 경제성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Q 앞으로 설계하고 싶은 건축물에 대한 방향을 일리 주세요.

A. 속임하면서 마음에 둔 건축관 중에 하나는 '시각 중심의 건축에서 탈피 해야겠다'입니다. 김태수 건축대학생으로서 신설대 유럽 건축학원 4개월 동안 하면서 시각중심의 건축이 얼마나 굽혀질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만든 침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진보다 실제 공간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는 하는데요. 카페라렌즈가 알아내지 못하는 꿀 간의 비단감, 재료의 불성, 및, 소리 등 꿀간의 기초적이고 깊은 요소는 시각 외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자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정형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동문주제를 시작으로 곧 아끼리는 자연친사까지 비정형 디자인을 계획부터 사용까지 꼼꼼히 향간 프로젝트입니다. 몇몇의 사전이 전부인 집이 아닌, 사용자가 구석구석 애정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건축의 본질이 있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비정형 디자인이 이 본질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살피하고 있습니다.



3. 흰여서 버리온 소연도의 모습



유주현 건축사무소 소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졸업
13회 김태수 장학재단 선발
건축사무소 아틀라인7 팀장
유주현건축사무소 소장



4. 미술협회 차제로 동일강을 준 진짜실



분도	동물병원
설계 및 시공	유주한인축사사무소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231-4
면적	53㎡



5. 무동성 있는 흄의 모습과 함께 보여지는 전로실

6. 깔끔한 느낌으로 마무리하고 각종 수납공간을 고려한 치치실